

청소년의 꿈과 희망, 농촌에서 키운다

전남농협 '청소년과 함께하는 농촌 희망캠프'

농산물 수확·식문화 체험에 진로 상담까지

'지속 가능한 사회'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고 지속적인 농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젊은 귀농인에게 일정기간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처음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가 인기를 끌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자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미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4일~5일 강진 농향월촌마을에서 전남 관내 7개 학교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14가정(4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농촌 희망캠프'를 열었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종 농산물 수확체험 및 농촌식(食)문화체험, 문화유적 탐방, 청소년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문승희 직업상담사 주관으로 진행된 진로상담 시간에는 향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한옥마을에서 숙식하는 농박체험은 가족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 자녀들과 보내는 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5일 강진 농향월촌마을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농촌 희망캠프'를 열고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간이 부족해 항상 미안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자녀들의 진학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무한한 잠재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영국 등 경기부양 기대감 확대

유가하락 안전자산 선호 확산

2분기 실적관련주, 반도체 관심율

8월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2030선을 상회하는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과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 등으로 외국인 20일만에 순매도 전환하며 주중반 2000선을 하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4일 열린 영국중앙은행이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 등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8월 들어 주춤해진 이머징국가로의 자금이동에 대한 기대심리를 다시 확산시켰다.

BOE 발표이후 외국인은 금요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화학 운수장비 등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2500억원을 매수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지수의 상승에는 하반기 사상최대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반도체업종을 중심으로한 IT업종의 상승과 그동안 수주감소와 실적악화로 고전하던 현대중공업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은 여전히 지수 상승에 따라 펀드환매와 차익매물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상승을 제한했다. 금요일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통신 화장품 엔터관련주 등 대부분 업종으로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944억의 순매도를 보였다.

지난주 국내증시의 양시장지수 모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업종간 등락은 매우 크게 발생하였다. 삼성전자를 중심의 반도체장비 재료 소재업종의 강세는 지속되었고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 건설업종도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두고 중국의 사실상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관련주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 직간접적으로 중국측 제재가 우려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보복조치영향이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에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상업버지 발급제한 등 추가조치가 나오고 있어 중국측의 공세강도에 따라 영향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관련주는 시간을 가지고 양국간의 대응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주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형주의 강세와 제약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등 개별 재료주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본격적인 2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과 기대치가 낮았던 종목의 가치를 재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주에도 2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실적발표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유가증권시장의 대형주 강세와 코스닥업종의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악화로 고전했던 은행과 증권업의 실적발표를 주목하고 중국과 삼성전자의 투자확대로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기대되는 반도체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높아 보인다.

정 계 두

<유니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리우올림픽서 한국 농식품 우수성 알린다

농식품부·aT, 홍보관 운영

인삼·김치 등 인기 식품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31회 하계올림픽 기간 동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aT는 올림픽 기간 중 브라질 리우의 세계적 관광명소 코파카바나 해변에 차려질 평창동계올림픽 공동홍보관 내에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홍보부스에서는 브라질 현지인들과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삼, 김치, 막걸리, 유자차 등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수출 농식품과 불고기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을 소개하고 이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K-FOOD 선물 꾸러미 배포 등을 통해 한국농식품을 알린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도 8월 한 달간 브라질 대표 쇼핑 사이트인 메르코디(Mercodex)와 폼

비니(Konbini) 홈페이지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판촉 및 홍보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지인의 케이푸드(K-FOOD)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aT는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작년 10월에는 중남미지역 주요 바이어로 구성된 '한국농식품 바이어 연합회'(회장 하운상) 출범을 통해 한국 식품의 체계적인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바이어 연합회에서는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림픽 참가 선수단 전체 식단에 한국산 김치를 포함시키고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aT 로스앤젤레스지사 이주표 지사장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은 올해 들어 전년대비 36% 이상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등 K-FOOD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올림픽 홍보를 계기로 브라질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 내 우리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다문화여성 친정나들이 항공권·체재비 지원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종복)는 최근 다문화농협(조합장 전봉식)에서 농촌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베트남 모국방문을 위한 가족양육항공권과 체재비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윤유미(25·본명 누엔타녹탁)씨는 지난 2010년 1월 남편 김용택(38세)씨와 혼인 후 6년8개월 만에 가족과 함께 베트남 친정을 방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결혼 후 5년이 경과한 이민여성 중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중 선정해 오고 있다.

윤씨는 연중 바쁜 시설하우스에서 꽃고추 농사를 하는 농촌에 시집와서 살림과 농사일을 배

우고 있으며, 당당하고 현명한 엄마가 되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2015년 9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개명하였으며, 상냥하고 친절해서 이웃주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이종복 본부장은 "농촌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광주본부는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2008년부터 14가정에 33명을 지원해 왔으며,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농교육' '한국문화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공사, 해외사업 공감대 형성 전국 순회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본부(본부장 김민철)는 지난 5일 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전직원 해외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했다.

농어촌공사는 1967년 농업기술수출을 시작으로 50여년 간 35개국 13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대부분이 소규모기술협력사업, 인프라투자사업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공기업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하는 주요해외사업은 농업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의 기술전수 요구와 공사의 기술력과 경험이 어우러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농업기반구축을 이룩한 공사의 경험과 기술은 개도국에게 있어 선행의 대상이다. 또 새만금방조제를 만든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대규모방조제 기술전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연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